

미지근한 욕망의 라디오

음향적 무의식

"지금 내가 가진 것은 나의 무의식이 욕망한 것, 즉 내가 원했던 것이다."

(실존적 변태수업-킹크, 캐럴린 엘리엇, 2020)

“부정되고 억압되고 터부시되는 욕망들은 우리의 삶에서 대개 성취된다.
이때, 당신은 금기시되는 이러한 욕망을 부정하고 억눌러왔기 때문에 욕
망이 성취되었음에도 이를 성취로 보지 못한다”

(실존적 변태수업-킹크, 캐럴린 엘리엇)

"지금 당신이 듣는 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욕망한 것, 즉 당신이 듣고 싶었던 것"



의식적 욕망 vs 무의식적 욕망

♥당신과 연결되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연결을 끊고 싶습니다

♥그래도 확실한 연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할 때 당신이 거부할 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것으로 연결감은 충분합니다

||듣는 것으로는 만족이 안됩니다

♥멀리 가고 싶습니다

||그냥 여기에 머무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상관 없습니다

||복제되고 싶지 않습니다.유일하고 싶습니다



George Tooker, Government Bureau, 1956. Source: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https://www.metmuseum.org/art/collection/search/488943>

관료제의 음향성은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동시에 소리를 통해 개인성을 드러낼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다. 소리가 없는 듯한 공간에서 소리를 드러냄으로써, 관료제는 이념적 보편성을 실현할 기반을 마련한다. 이 공간은 청각적 통제의 장을 형성하지만, 관료제가 스스로 ‘귀’를 드러낼 필요는 없다. 공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귀처럼 기능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관료제는 우연히 존재하는 청중도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끌어들인다. 우리는 사적 영역의 폭로가 ‘정상화’되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이러한 음향적 구조가 소리 위협 메커니즘을 통해 제재를 가할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것이다. 즉, “당신이 지금 듣고 있는 이 상황이 언젠가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인식을 각인시키는 것이다. 나는 이를 ‘전음주의 (*panauralism*)’라 부른다.

(권력은 어떤 소리를 내는가? 일상 속 관료제의 음향성, 니나 드라기체비치)

“여기서, 나에게, 그리고 모두 앞에서 목소리를 내라”

“공개적 자백(public confession)”을 음향적 사건으로도 논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과 그 전체 삶의 특정 죄, 실수, 위험, 일탈을 권위(생명관료제, biobureaucracy)와 공공(공공 음향 스펙터클, public sonic spectacle) 앞에서 인정하는 사건이다.

병원, 경찰서, 은행, 주민센터 . . .

그리고 라디오에서?

꿈

무의식

꿈 속에서 학교에 교과서를 안챙겨왔다거나, 바지를 안입고
왔다거나 하는 식의 실수를 한다. 들키지 않을 수 있을 거란 기

‘벽’, ‘책상’, ‘의자’ 같이 침묵하는 우연한 청중

대를 한다. 그 비밀을 애써 지키려고 하는데 결국 모두 나를

누군가에 의해 폭로 당하는 것을 어쩔 지독히 원하고 있었던가?

획 돌아본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한다. 창피하고 수치스러움을

청각/음향적 마조히즘

느낀다. 나의 무의식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행동을 통

해 창피를 당하고, 그 때문에 주목을 받게 되길 원한다. (정말?)

마조히즘적 변태인가?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비밀과 라디오 나의 취약함

을 드러내면 더 큰 만족감을 느끼게 될까? ADHD의 특징이기

도 한 oversharing과도 관련이 있을까? (RSD를 통해 살아있음

을 느낀다)

나의 무의식이 관료제, 가족주의, 성역할에 갇혀있다.

비밀폭로를 대행하는 dj는 관료제의 목소리

약 100여년 전 발터 벤야민이 처음 라디오 방송의 정례 진행을 의뢰 받았을 때, 방송국 보도국장은 “라디오 청취자는 거의 항상 개별자이고, 당신은 수천 명을 상대한다고 가정해도 늘 수천 명의 개별자와 연결될 뿐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청취자를 군중으로 여기지 않을 것을 충고했다고 전해진다.

향하는 귀, 흐르는 걸음, 벌어진 사고 | 환삼덩굴라디오

기능이 정해져 있는 귀를 나눠주고, 이를 통한 소리를 전달하는

“환경적 소리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꺼버리거나 외면할 수는 없는 종류의 것이라는 점에서, 여기에는 두 가지 욕망, 즉 조작할 수 없는 환경이 되고자 하는 동시에 조작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중첩되어 있다.“

시스템이 되고 싶은 욕망 ↔ 현상으로 남고 싶은 욕망

시스템은 외롭다

(0.5초의 사이렌 네트워크, 최보련, 2024)

“예술은 현재의 적이다. 예술은 항상 다른 시제를 도입함으로써 현재를 변화시키고자 한다. 다른 시제를 도입함으로써 인식하는 세계를 변화시킨다. 새로운 리듬, 잊혀진 것들, 무시된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불가능한 것들을 도입한다.”

항상 다른 시제를 도입= 의식의 영역=예술=용해 후 다시 응고하는 과정

라디오가 예술 형식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 내용이 완전히 변화할 것이다. 더 이상 기계 기술, 기계적이고 시계화된 메커니즘의 노예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생산과 소비의 경련에 따라 두근거리지 않을 것이다. 기계화의 장애물을 초월하고, 행상인과 선전가들의 광란을 잠재우고, 뉴스 진행자들의 목소리를 흐리게 만들 것이다.

(Radical Radio, R. Murray Schafer, 1990)

신문과 종이를 비유로 들어보자. 종이는 매체이며, 무엇을 그려도 ‘종이 위의 예술’일 뿐 종이 자체가 예술이 되는 것은 아니다. 종이를 구겨 ‘휴지’로 만들 때, 비로소 물질이 변형되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아도르노는 “아우슈비츠 이후의 문화는 쓰레기(Müll)”라 했고, 이는 ‘쓰레기(garbage) 예술’의 옹호이기도 하다. 전파(airwaves)는 현대 사회의 가장 보편적 ‘쓰레기 물질’이라 볼 수 있다.

질 들뢰즈는 주름(fold)개념을 통해, 물질의 다중성은 내용이 아니라 물질 자체의 접힘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방송 전파에서 콘텐츠는 기생하는 ‘부분’(carrier)에 불과하다. radioart는 전파라는 물질에 직접 개입해 ‘주름’을 만들고, 진동(oscillation) 자체를 놀이(플레이)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때 소리·빛은 메시지라기보다 전파의 ‘내적 생(生)’을 드러내는 지표다.

WALL PIECE FOR ORCHESTRA to Yoko Ono

Hit a wall with your head.

1962 winter

